본문 : 출애굽기 1 장 8-13 절
제목 : 꺾이지 않는 마음

1.
제가 여러분에게 고해성사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신 땅을 놀리고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무슨 얘기냐구요? 지난 주 수요기도회에서 성서일과 본문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해 꾸짖으시는 말씀이 이사야, 시편, 마태복음의 세 본문에 모두 나오더라구요. 이 말씀들을 읽는데 저에게 찔리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작년에 뒷뜰에 텃밭을 만들기 위해 저희 집 landlord 에게 허락을 맡았습니다. 뒷뜰의 잔디를 긴 직사각형 형태로 파고 밭을 만들어 작물들을 심어볼 생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파 놓은 잔디를 쌓아 비료를 만들기 위해 음식물 쓰레기도 붓고 열정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뒷마당이어서 눈에 잘 안 띄어서 그런지 제 열정이 식어버렸는지, 올 봄에 비료를 뿌리고 좋은 흙을 섞어서 채소와 열매 맺는 작물들을 심었어야 하는데 타이밍을 놓쳐버렸습니다. 명아주풀(white goosefoot)이 봄부터 자라고 있더라구요. 뽑지도 않고 그냥 방치 해 놓고 한 두 달 뒤에 보니 맙소사, 풀이 제 키보다 더 크게 자라 있는 것이었습니다. 열매는 커녕 지난 달 매일 비가 오는 날에 삽을 가지고 힘겹게 뿌리째 풀을 파내야 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지 않으면 울며 풀을 거두리라" 이 교훈을 크게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열매를 거두시길 바랐는데 열매가 없을 때 주인이 얼마나 실망할까 느낄 수 있는 시간였죠. 반성하고 내년에는 꼭 열매 맺게 해야겠다 다짐해 봤습니다. 그런데 명아주풀이 밭에 가득한 것을 보고 풀의 번식력에 사뭇 놀랐습니다. 어릴 적 농사 지으시는 부모님이 가장 힘겹게 씨름하셨던 일이 풀 뽑는 일이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풀의 생명력이란 정말 놀랍습니다. 이집트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력과 번식력도 마치 풀과 같습니다. 출애굽기 1 장 7 절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은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그 수가 불어나고 세력도 커졌으며, 마침내 그 땅에 가득 퍼졌다라고 전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니 생각나는 말씀이 있지 않나요? 창세기 1 장 28 절에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하신 명령이 여기서 이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365 개의 하지 마라는 명령과 248 개의 하라는 명령이 있다고 합니다. 총 613 개의 율법 명령이지요. 하라는 명령의 가장 첫번째 명령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런 면에서 풀들은 하나님의 첫번째 명령을 가장 잘 따르는 녀석들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2.
출애굽기 1 장부터 창세기의 내용이 연상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 네 권의 책이 실은 이어진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신명기를 뺀 이 네 책을 모세 4 경이라고도 부릅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히브리 성경의 맨 첫 글자는 "그리고"라는 순접 접속사로 시작되기 때문이죠. 출애굽기의 첫 문장은 "And these are the name..."으로 시작된다고 지난 주 말씀드렸죠. 창세기는 인류 역사의 시작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구원 역사의 시작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한 개인을 통해 모든 민족을 구원할 하나님의 거대한 프로젝트의 시작을 창세기는 보여주죠. 그 구원 프로젝트를 이루기 위해 한 사람을 부르고, 그를 통해 만들어진 가정의 이야기가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개인과 가정과 그 안에서 이뤄진 관계를 통해 하나님이 이 역사 안에 어떻게 일해 가시는 지를 보여주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출애굽기는 한 단계 발전해서 가족이 민족이 되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어떻게 온 세상과 모든 민족을 위한 제사장 나라로 거듭나는 지에 대한 이야기로 확장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모티브들이 엿보이는 구절들이 출애굽기 곳곳에 있는 것이죠.

창세기 마지막 구절에는 요셉이 죽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날이 온다. 그 때에 너희는 나의 뼈를 이 곳에서 옮겨서, 그리로 가지고 가야 한다." 이집트의 룩소르에 가면 투탕카멘 왕의 미라를 볼 수 있습니다. 요셉도 이 왕처럼 방부제 향 재료를 넣은 다음 입관했다는 내용이 창세기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요셉이 죽은 지 400 년이 지났지만 요셉의 시신은 썩지 않고 남아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당시 요셉의 무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상징성을 지녔을 겁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해주고,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중요한 구심점 역할을 요셉의 무덤이 담당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마지막 절에 굳이 그의 유언과 그의 시신처리에 대한 내용이 언급된 것 같습니다.

3.
그런데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했다는 말은 요셉을 통해 이어졌던 왕실과의 두터운 관계가 끊어졌다는 말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베풀었던 이집트 왕실의 특혜와 호의가 끊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호의와 특혜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왕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 하는 이유를 9 절이 설명해 줍니다. 그들의 생산력은 이집트 사람들보다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집트 땅에서 이집트 사람들의 인구수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구수가 더 많은 불균형이 일어난 걸로 보입니다. 이집트 왕실에서는 당연히 위협을 느낄 만도 합니다. 이대로 놔뒀다가는 그들이 반역이라도 일으키면 곤란해 질 거라 생각합니다. 게다가 전쟁 중에 적국에 합세하면 큰 코 다칠 것이라는 두려움이 생긴 것이죠. 10 절 말씀에 "그러니 이제 우리는 그들에게 신중히 대처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지혜가 호크마인데, 여기에 호크마가 쓰이고 있습니다. 지혜롭게(wisely-KJV)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의 지혜에서 나온 상상력이란 고작 이방 민족을 압제하고 탄압하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인들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고 전략적으로 그들을 향한 악성 루머, 가짜 뉴스들을 퍼뜨리며 그들을 억누르는 것이었죠.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켰습니다. 강제 노역이 무엇인가요? 노동의 대가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일을 했는데 그 일에 대해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무엇보다 강제 노역이 의미하는 것은 히브리 민족이 더 이상 자유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마치 남한에 살다가 갑자기 북한의 아오지 탄광의 강제 노역에 끌려간 격입니다. 화려한 페리에 올라 탄 여행객들이 갑자기 새우잡이로 내 몰리는 신세라고 할까요. 그들의 상황이 갑자기 얼마나 힘들게 바꼈는지에 대해 상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자유민으로 고센 땅에 살 것을 배려 받았지만, 이제 이집트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강제 노동을 해야만 하는 노예 신세로 전락한 겁니다.

4.

그런데 이렇게 상황이 심각할수록 오히려 그들은 더욱 번성하였고 더 강해졌다고 전합니다. 이 사실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는 제국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더 강하고 앞선다는 것입니다. 이집트 제국은 억누르고 억압하면 모든 것이 그들의 통제 안에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창세기 12 장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 억압과 탄압 속에서 이뤄지는 역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둘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인함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뒤에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신대도 그들이 그것을 버티지 못했다면 소용이 없었겠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이 난국을 잘 뚫고 갔습니다. 그들에게는 고난이 오히려 자극이 되었고 더 번성해야 할 이유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그들은 더 뭉쳐야 한다는

것을 알았고, 더 많은 자손들을 낳아 힘을 키워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마치 채찍질이 강해질 수록 더 꼿꼿하고 강하게 돌아가는 팽이와 같았습니다. 고난이 강할수록 그들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던 힘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조상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그들에게 장기적인 전망을 주었으리라 믿습니다. 당장 눈 앞에 닥친 고난에 쓰러지기보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심으로 허락하실 머지않은 미래에 이뤄질 약속을 붙들지 않고는 이 험한 세상에서 버티기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이민자인 자신들을 대하는 현지인들의 냉대와 혐오, 그리고 강제 노동으로 찾아온 자유민에서 노예로의 갑작스런 신분 변화는 웬만한 멘탈로는 버티기 힘든 갑작스런 고난의 폭풍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히브리인들에게 외적인 조건이 미래를 결정하지 않은 듯 보입니다.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는 역설은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시사해 줍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란 말이 떠오는 대목입니다.

5.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짚어 보고자 하는 것은 이집트 제국의 민낯입니다. 10 절에 보면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반역을 하거나 전쟁 중에 적에 합세하는 것은 핑계이고 진짜 이유가 10 절 끝에 밝혀지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서 떠나는 것을 두려워 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싫어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서 몰아 내면 되는 것 아닌가요? 싫어하면서 떠나는 것은 원치 않는 것은 이율배반적이지 않나요? 히브리 노예들이 그들에게 가져다주는 노동력의 꿀맛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노예를 부려 먹고 이용해 먹는 재미가 쏠쏠했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곡식 저장고를 만들게 하는 국가적인 개발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기 위해 히브리 노예들의 노동력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게다가 벽돌 제조와 농업 분야에도 히브리인들의 노동력은 이용 가치가 너무나 컸던 것이죠. 이 숨겨진 욕망이 이집트 왕과 이집트 백성들이 히브리인들이 싫으면서도 붙들고 있는 이유였습니다.

제국의 민낯이라고 한 것은 역사상 이집트 뿐만 아니라 모든 제국들에 나타나는 공통점이기도 합니다. 로마 제국, 나찌 독일, 일본 제국 등이 모두 그랬습니다. 제국들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이자 존엄한 인격적 주체로서 존중 받을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수단으로 여겼습니다. 혐오와 배제에 기생해서 제국주의는 커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의 자본주의 신 자유주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노동력, 인적 자원, 이용 가치, 이런 말들은 실은 사람들에게 쓰면 안 되는 용어입니다. 어떤 인간이든 그의 존재 자체로 존중 받고 대우 받을 만하다는 인간 존엄의 고귀한 가치는 제국주의의 성장과 효율의 가치 앞에 발 딛을 자리가 없는 듯 합니다. 우리가 이런 제국주의적 가치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이런 가치들이 우리 속에 내제화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출애굽은 이런 이집트의 제국주의 시스템에 대한 저항입니다. 형제 자매가 모두 인간 다운 대우를 받고 존중 받는 평화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출애굽을 통해 이루고자 하신 겁니다.

6.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이벤트가 있습니다. 구약의 출애굽, 신약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출애굽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많은 메시지를 줍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그들 조상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기억하고 되새기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출애굽을 통해 그들은 노예에서 자유민으로 거듭나게 되었죠. 자유민이 된 그들은 하나님과의 시내산 언약을 통해 언약 백성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 중요한 이벤트인 출애굽기를 함께 묵상한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출애굽기의 시작은 우리가 올 초에 함께 나눴던 야고보서의 시작과도 비슷해 보입니다. 제국의 지배 하에 흩어져 살아갈 수 밖에 없는 디아스포라들이 마주한 고난의 문제를 목회서신을 통해 어루만지고자 했던 야고보의 마음이 출애굽기 첫 장의 분위기와 비슷해 보입니다. 10 절에 이집트인들이 우리는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하는 부분에 '지혜'라는 히브리 말 호크마가 등장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야고보가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라고 디아스포라에게 권면하는 것이 야고보서의 핵심 내용이었잖아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지혜가 이집트의 지혜를 능가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니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라고 권면해 줍니다.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보다 효율적으로 보이고 실제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집트인들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다 겪는 고난을 여러분들이 겪고 계시다면 세상의 지혜로 이리 저리 피하는 길을 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끝까지 붙드시길 바랍니다. 본문에서 비쳐지는 하나님의 지혜는 함께 공동체로 이겨내는 지혜입니다. 고난에 위축되지 않기 위해 그들은 더욱 많은 자손들을 낳았고 그렇게 만들어진 공동체의 힘으로 이 난관을

극복하고자 한 것입니다. 외적인 조건에 휘둘리지 않는 삶의 지혜를 공동체를 통해 함께 확인하며 이겨나간 것입니다.

저희 집 뒤뜰에 그렇게 생명력 있게 자라났던 풀의 생명력을 보며 <풀>이라는 김수영 시인의 시가 떠올랐습니다. 풀이라는 시의 2 연입니다.
"풀이 눕는다 / 바람보다 더 빨리 눕는다 / 바람보다 더 빨리 울고 /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풀은 바람보다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는 기술이 있습니다. 아니 지혜라고 하지요. 김수영이 말한 풀은 민중의 강인한 생명력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술이 이 풀의 기술이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 삶을 억압해 오는 온갖 부정적인 대상들 속에서도 긍정적 가치를 찾아내는 기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히브리인들의 지혜였습니다. 고난에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번성하는 신앙의 지혜를 우리도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옛 어른들이 늘 하는 말이 있었죠. "기술이라도 배워야~" 이 기술보다 더 가치 있는 기술이 있을까요? 외적 조건이 나를 결정하지 않고, 부정적 조건들 속에서도 긍정적 가치를 찾아내는 기술보다 더 가치 있는 기술이 있겠냐는 말입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눈 덮힌 보리밭에서의 보리밟기입니다. 한 겨울에 눈이 수북이 쌓이면 어린 저희들은 보리밭을 밟아야 했습니다. 보리밟기라는 농사 기술입니다. 눈 속에 파묻혀 있는 파란 보리싹을 발로 짓밟으며 눌러줍니다. 이렇게 하면 보리가 뿌리를 더 단단히 땅에 박게 되고 봄에 더 실한 곡식을 맺게 된다고 합니다. 보리 입장에서는 갑작스런 압력과 고난이 가져다 주는 번성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닥친 갑작스런 고난이 오히려 여러분을 번성하게 해주는 요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담쟁이라는 시를 읽으며 고난을 이겨가는 또다른 지혜를 생각해 보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 어떤 고난도 함께 손잡고 연대하면 이겨내지 못할 것이 없다는 메시지를 던져주는 도종환 시인의 담쟁이라는 시입니다. 고난에 위축되지 마시고, 함께 손 잡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화의 공동체를 향한 꿈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